

과일류 · 육류 · 구매 많고 대형마트 선호 여전

농진청, 가정의 달 신선식품은 대형마트 · 전통시장 · 선물은 온라인 구매 비중 높아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가정의 달 맞이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및 판촉(마케팅)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어버이날(55.5%), 어린이날(26.1%), 스승의날(5.7%) 순으로 가정의 달 기념일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6명은 평소와 비슷하게 소비하겠다고 답했다.

어버이날에는 육류(38.0%), 과일류(29.4%), 건강기능식품(18.8%) 순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매 목적은 가족 식사용(41.5%), 건강을 위해서(32.2%)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날에는 과일류(36.8%) 구매 의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류(33.1%), 유제품(7.2%) 등이 차지했다. 주로 가족 식사용(39.3%), 간식용(31.5%)으로 구매한다는 답이 많았다. 농식품 주요 구매처는 여전히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는 대형마트(46.2%)와 전통시장(18.2%)을 주로 찾았다. 가공식품과 선물 세트는 온라인 구매 비중(33.2%)이 높았다.

대형마트는 접근하기 쉽고 상품이 다양해서 이용한다고 답했고, 전통시

장은 가격 만족도가 크고 온라인몰은 배송이 편리해서 이용한다고 꼽았다.

가정의 달 가족이나 이웃 친지에게 줄 선물은 건강기능식품이 단연 우세했고, 가격대는 10~15만 원대를 가장 선호했다.

선물을 고를 때는 '받는 사람의 선호'(50.5%)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고려(30.3%) 및 가격 대비 품질(10.4%)이 뒤를 이었다.

선물용 과일류는 사과(26.4%), 포도(20.0%), 과일 바구니(16.5%) 순으로 선호했다. 육류를 선물할 때는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한우 등심·안심(57.5%) 구매하겠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한우 불고기(19.5%)를 골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 가정의 달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증가 품목을 중심으로 실속형 묶음 상품을 기획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의 신선식품 판촉을 강화하고, 가공식품 온라인 홍보(프로모션)를 확대하는 등 유통채널별 전략을 달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 하두종 과장은 "가정의 달 농식품 소비 경향은 전반적으로 평소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선물 구매와 가족 식사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과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맞춤형 판촉과 홍보 전략을 세워 소비자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꿀벌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9일 강원 양양군 달래저수지에서 밀원식물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꿀벌이 돌아오는 숲 만든다

농어촌공, 저수지 유휴부지에 묘목 200본 밀원식물 식재

한국농어촌공사는 꿀벌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9일 강원 양양군 달래저수지에서 밀원식물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꿀벌 귀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양봉협회, 트리플래닛, 비좁은농기업 등 40여명이 참석해, 저수지 유휴부지에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식물인 오동나무 묘목 200그루와 유채를 심었다.

최근 이상기후, 먹이 부족 등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벌집 군집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꿀벌은 식물의 수분에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꿀벌 생

태계 회복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부터 '꿀벌 귀환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밀원식물을 심어 꿀벌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꿀벌 귀환 심포지엄'을 개최해 꿀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최구순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꿀벌의 서식지가 줄어들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식재 행사를 계기로 꿀벌 보호는 물론 지역 양봉농가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한덕수 대행과

‘中企 규제혁신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함께 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남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찬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관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안과제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등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김기남 중기중앙회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3년 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큰 감명을 주었다"며 "복잡한 정치상황, 주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손으로 심던 밭작물, ‘기계’로 심어 농촌 일손 부족 해소한다

농진청, 고추 · 배추 겸용 정식기 개발… 노동력 7배 절감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인 아주살기(정식)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흙울림식 휴입파복기를 개발했다.

밭작물 재배는 경운·정지, 파종·아주살기, 비닐 피복, 방제, 수확 등의 작업으로 이뤄진다. 이 중에서 파종·아주살기, 수확의 기계화율은 다른 작업 공정보다 낮은 편이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고 노동 강도가 높은 아주살기 기계화율은 18.2%

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고추와 배추의 아주살기 기계화율은 거의 0%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묘산업과 연계한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아주살기 전후 작업을 하나의 기계로 할 수 있는 흙울림식 휴입파복기를 개발했다.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는 연약한 육묘를 다치지 않게 육묘판에서 뽑아 심는 농기계다.

기어만 바꾸면 고추에서 배추로, 배추에서 고추로 작물 전환이 가능해 연

중 작업기 활용 일수가 2~3배 늘어나 경제적이다.

관행대로 아주살기 했을 때는 고추가 10아르당 12.8시간, 배추가 10아르당 13.9시간 걸렸으나 정식기로는 2시간 만에 마쳤다. 작목당 노동력은 6~7배 절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아주살기 전 두둑을 성형하고 점적호스를 설치한 후 비닐을 씌웠다. 아주살기 후에도 작물을 심었던 구덩이를 되메우는 작업을 해야 했다.

이번에 개발한 흙울림식 휴입파복기는 이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휴입파복기가 아주살기 전 작업으로 흙을 두둑 위에 올려놓으면 정식기가 아주살기를 하며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구덩이가 되메워진다.

기계를 이용한 아주살기를 할 때는 여기에 맞는 육묘 생산기술도 필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민간 우수 육묘장과 협업체 모종 길이, 잎의 퍼짐, 뿌리 발달 등을 조절하는 등 정식기 이용에 적합한 육묘 생산기술도 개발했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익산부송데시앙 단지내 상가 4호 분양

전북개발공사는 익산부송데시앙(745세대) 단지내 상가 4호를 입찰(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5월 2일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https://onbid.co.kr>)를 통해 공개되며, 5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최고가 낙찰제로 입찰이 진행된다.

익산부송데시앙 단지내 상가는 총 4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수요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올해 12월 입주 예정인 745세대의 고정수요를 확보했다.

익산부송데시앙 단지내 상가가 들어서는 부송4지구는 익산의 신중 주거지

인 부송동에서 개발이 본격화된 곳으로 29만4,000여㎡ 규모의 부지에 약 1,700세대의 주택, 공원 등이 들어서 관련 수요의 대거 유입도 기대된다.

이에 더해 공동초, 영등중, 어양중, 부송도서관과 부송동 학원가도 가까워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폭넓은 배후수요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농촌진흥청은 5월 1일 2025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 등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 인공수정, 전염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담당하는 축산분야 전문 인력이다.

이번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5년도 필기시험은 7월 12일, 전주 시에서 실시되며, 접수는 5월 16일(오전 9시)부터 5월 23일(오후 6시)까지다.

실기시험은 완주군에서 8월 30일에 실시되며, 접수는 8월 1일(오전 9시)부터 8월 8일(오후 6시)까지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총 5과목이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총 100문항)씩 출제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한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 인공수정 실무 절차를 평가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가중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이 2024년부터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올해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2차 실기시험만 접수하고 응시하면 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만5,000원, 실기시험 3만 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험 일정은 가축 전염병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